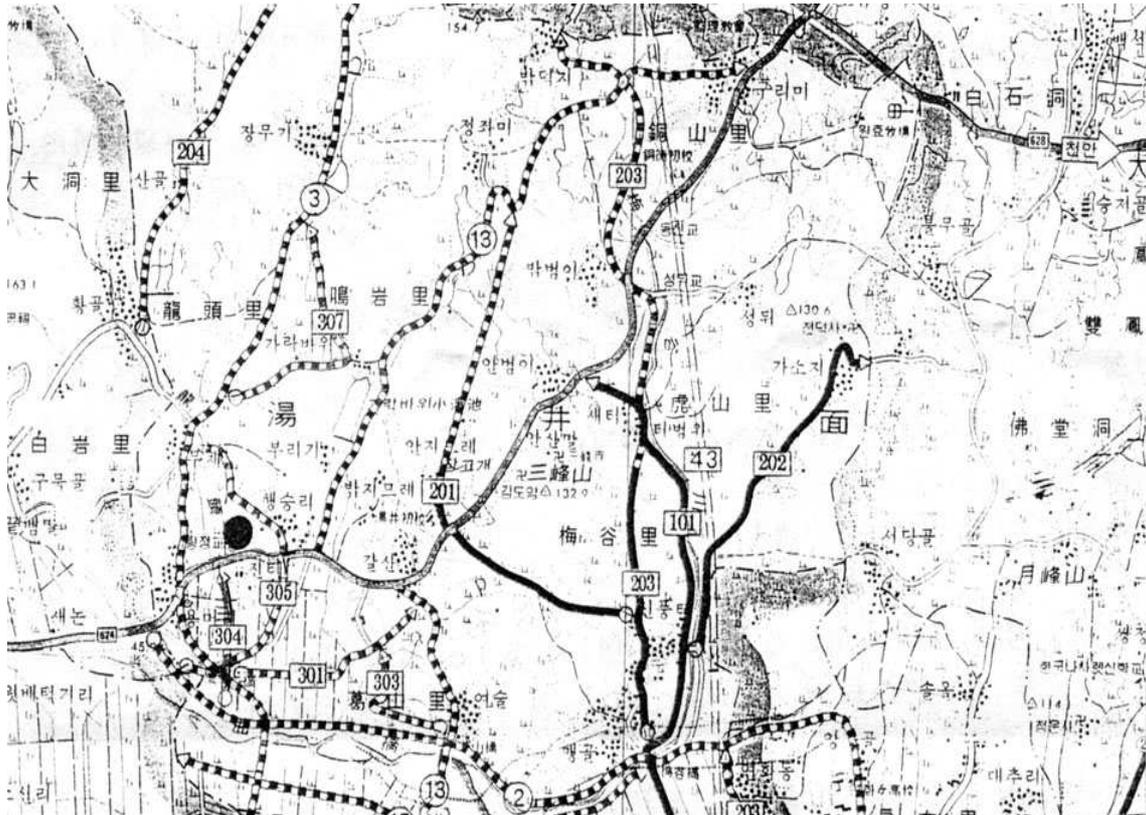


호산리·虎山里

호산리는 탕정면의 한 마을로 작은 자연부락 네 개로 나뉜다. 1구는 안범이, 2구를 발범, 3구를 새터버미 4구를 성뒤라 부른다. 총인구는 2,165명으로 가구수는 1,039가구이며 전체의 5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호산리는 본래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 뒷산의 모양이 범과 같으므로 버미 또는 호산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호리, 외호리, 신대리, 성북리를 병합하여 호산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호산리의 위치도>



☒ 안범이, 발범이, 새터버미, 성뒤마을

호산1리는 호산리의 으뜸가는 마을로 뒷산의 형상이 범과 흡사하다하여 버미라 이름지어 졌다. 버미를 기준으로 바깥 마을을 밧버미, 안쪽마을을 안범이라 한다.

호산2리는 산의 형태가 호랑이가 누워있는 형상인데 호랑이 바깥쪽에 있다해서 발범 또는 외호리라 불린다.

호산3리는 지금의 마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장마때만 되면 침수의 피해가 잦아 지금의 위치로 이사를 하고 새롭게 터를 잡았다하여 새터라 하게 된 것이다. 이 마을에는 100년이 넘는 쥐엄나무가 있는데 나무둘레는 2.4m, 높이는18m에 이른다.

호산4리 성뒤마을은 마을 뒤에 있는 산봉우리에 백제 초기에 축조된 토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있고 성의 뒤에 있을 마을이라 성뒤라 불리고 있다.

<조사당시 호산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안범이는 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정도 떨어져 있고, 101도로끝 지점에 있는 마을이며 203구도로와 101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안범이에서 도로를 타고 음봉방향 만도기계 쪽인 매곡 방향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중 음봉방향으로 가다보면 마을이 나오게 된다.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이 발범이다.

새터버미는 202번 도로와 101번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버미에서 만도기계 쪽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100m정도 들어가면 도로 우측에 새터범이 자리하고 있다.

성 뒤 마을은 호산리 1구 도로에서 음봉방향의 길과 만도기계 쪽인 매곡방향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음봉방향으로 가다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 깊숙히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2) 현황

안범이의 인구는 총 1,722명으로 남자가 935명 여자가 787명이다. 총 910가구인데 31가구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879가구는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발범이는 총 171명으로 남자 87명, 여자 84명이다. 50가구중 30가구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새터버미의 총 인구는 130명이며 그중 남자 61명, 여자 69명이다. 총 46가구중 22가구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성뒤 마을은 남자 74명, 여자 68명 총 142명이며 33가구중 25가구가 농가로 1리 2리 3리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다.

- 인구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안범이마을	1,722	935	787
발범이마을	171	87	84

새터버미마을	130	61	69
성뒤마을	142	74	68

- 생업 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안범이마을	100%	3%	97%
밭범이마을	100%	60%	40%
새터버미마을	100%	48%	52%
성뒤마을	100%	76%	24%

농경지 현황을 보면 다른 마을 보다 밭범이 마을이 총 51ha로 가장 많고 밭의 경작지는 각 마을이 비슷하다. 그러나 인구에 비한다면 안범이 마을의 경작지가 제일 적은 편이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안범이마을	40ha	22ha	18ha
밭범이마을	51ha	33ha	18ha
새터버미마을	38ha	18ha	20ha
성뒤마을	39ha	19ha	20ha

- 농기계 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콤바인	건조기
안범이마을	14	1	23	9	3	35	1	1
밭범이마을	20	4	23	11	3	17	3	2
새터버미마을	37	10	67	23	19	41	4	2
성뒤마을	21	2	14	10	3	5	1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기타
안범이마을	1	1	1조	
밭범이마을	1	1	1조	
새터버미마을	1	1	1조	
성뒤마을	1	1	1조	

- 연령 분포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	------	-------	-------	-------	-------	-------	-------	-------	------

안범이마을	12	9	9	20	42	53	22	5	3
밭범이마을	17	5	9	7	33	35	35	13	17
새터버미마을	3	11	13	13	20	21	30	16	3
성뒤마을	30	20	25	3	10	20	20	9	5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민씨	한씨	정씨	류씨	기타
안범이마을	16%	8%		4%	2%	7%	63%
밭범이마을	8%	10%	16%	10%		14%	42%
새터버미마을	19%	11%			7%		63%
성뒤마을	27%	18%	12%				43%

- 학생 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안범이마을	5	2	3	2
밭범이마을	3	2	3	5
새터버미마을		6	5	3
성뒤마을	15	15	10	4

- 최고령자

안범이마을은 96세의 송용봉 할아버지이시고 밭범이마을은 81세의 정옥희 할머니 이시고 새터버미마을은 91세의 한복남 할머니이시다. 성뒤마을은 83세의 설병순이신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호당평균소득

안범이마을은 년/1,600만원, 밭범이마을은 년/1,500만원, 새터버미마을은 년/1,800만원, 성뒤마을은 년/1,500만원

3) 자연 경관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상가와 몇 개의 다층 건물이 있으며 길 밖에는 조용한 한옥집과 양옥집이 들어서 있다.

밭범이는 가옥들이 도로 왼쪽에 밀집해 있고, 마을위쪽으로는 산이 위치해 있다. 또한 마을 왼편으로 또다른 도로가 하나 있는데 마을과 그 도로 사이에는 논들이 위치해 있다

새터범은 동쪽으로는 바로 도로와 접해있으며 그 도로 건너편에는 많은 논들이 펼쳐져 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왼편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으며 왼편으로 약 0.8km 떨어진 지점에 천덕사라는 절이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버미는 본래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 뒷산의 모양이 범과 같으므로 버미 또는 호산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호리, 외호리, 신대리, 성북리를 병합하여 호산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성뒤마을은 1987년 호산2리에서 호산3리로 분구됐다.

5) 입 향

마을에서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김씨이며,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약간 넘는다고 한다.

6) 지명

버미 : 호산리의 으뜸가는 마을 지형이 범과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

밭버미 : 버미 바깥쪽에 있는 마을

새터 : 안버미 아래를 길가에 새로 된 마을

성디(성 뒤) : 성재 뒤쪽에 있는 마을

안버미 : 버미 안쪽에 있는 마을

분토틀 : 안버미 위에 있는 골짜기, 분토가 남

버미고개(장고개) : 버미에서 갈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미륵 : 안버미 입구에 있는 미륵, 높이 2m 가량되며 매년 정월 14일에 제사를 지냄

호산절 : 호산에 있는 절(감로암, 삼봉사)

호산리 산성 : 호산리 뒤쪽 야산 정상에 축조되어 있음. 신라시대에 건축되었고, 과거 통신의 수단이었던 봉화터였을 것이라 한다.

장수바위 : 뒷산 꼭대기에 있는데 바위에 사람 발자국이 또렷하게 여러개 있다고 한다., 힘센 장수가 밟은 발자국일 것이라 하여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갓쓴바위 : 마을 입구 개울가에 있으며 갓을 쓴 모습과 비슷하여 갓끈처럼 줄도 있다고 한다.

취엄나무 : 100년이 넘었으며, 나무 둘레는 2.4m, 높이는 18m에 이른다.

재홍지 도랑 : 호산리가 호랑이 형국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피해 도망가는 곳이라 하여 개홍지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말바위 : 호산리 1구에서 새터범이로 들어오는 길 우측에 있다. 수풀에 뒤덮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말의 엉덩이처럼 생겼다.

7) 전 설

- 호랑이 바위 -

아산군 탕정면에는 호산이라는 마을이 있다. 지금은 이곳에 사람도 많이 살고 버스도 들어오고 해서 큰 마을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깊은 산속이었다. 이 마을 길옆 산속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어느날 그곳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 먹었다 한다. 그래서 이 곳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일찍부터 집에 돌아왔고 길을 다닐적엔 때를 지어 등불을 밝혀 들고서야 이곳을 지나쳐 다니곤 했고 혼자서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 바위앞에 가기를 꺼려하고 멀리서 지나칠 때에도 한번씩 돌아보고 지나가는데 언제부턴지 사람들은 이 바위를 범바위라 이름했으며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이 마을을 버미 또는 호산이라 했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안범이 입구에는 미륵이 서있는데 높이는 약 2m 정도 되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14일에 미륵에게 제를 올리고 있다. 한때 산신제와 노신제를 지냈는데 산신제는 비인찰암 묘소 옆에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정월초에 지내다가 해방전에 없어졌고 노신제도 그 무렵에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그곳에 놓아둔 산제사 도구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한다. 산신제와 노신제는 없어졌지만 6년전부터 새로 만들어진 제사가 있는데 샘제사라고 한다.

그밖에 정월 보름에 풍물놀이와 윷놀이를 하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치며 그 집이 잘되기를 빌어준다고 한다. 마을 계로는 돈계라 하여 일년에 한 번씩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성뒤마을에서는 산신제라든가 다른 제를 올리는 것은 전혀 없으며,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로서 도네계가 있다.

또 모든 마을이 부녀회 및 청년회 주관으로 어버이날 행사 및 효도 관광 매년 실시하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 할 만한 인물은 조사 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아산제일교회 탕정면 호산1리 466-3 목사 오선택

호산장로교회 탕정면 호산4리 43-1 목사 이봉한 종파 : 장로교

감로암 탕정면 호산1리 283 주지 박종락 종파 : 태고종

11) 공장현황

무학정밀 대표 정병택 호산350-1번지 생산품목: 금형부품

건설유리산업 대표 홍명화 호산 325-1번지 생산품목 : 복층유리

범일 엔지니어링 대표 이강열 호산 372-1번지 생산품목 : 플라스틱성형용기

오로라 대표 이응식 호산 산80 생산품목 : 개폐 보호 장치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의 지명은 대부분 범과 관련된 것이어서 매우 흥미가 간다. 역사적으로 안범이는 1820년경 삼면이 둘러싸인 산세로 수질이 좋아 물맛이 으뜸으로 민속주인 동동주, 막걸리를 생산하는 양조장이 일제시대때 건립되어 온양군 일북면 지역에 공급한 적이 있는 마을이며 매년 7월 17일은 고향을 방문하는 날로 지정하여 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 발전에 기여 하는 날로 정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